

진격의 맨시티, EPL 3연패 보인다

홈에서 선두 아스널 4-1로 꺾고 7연승... 승점 2점 차 추격 '괴물 공격수' 홀란 33호골 폭발... 시즌 득점 신기록 행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2위를 달리던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사실상 리그 결승전'은 예상대로 맨시티의 압승으로 끝났다. 맨시티는 아스널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탓에 승점 2가 모자라지만 EPL 3연패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갔다.

EPL 2위 맨시티는 2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2-23 EPL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케빈 데브라위너와 엘링 홀란의 '쌍끌이 활약'을 앞세워 선두 아스널을 4-1로 대파하고 역전 우승 가능성을 한층 키웠다.

중원 사령관 데브라위너가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괴물 공격수' 홀란이 1골 2도움으로 힘을 보태면서 19년 만에 우승을 노리던 아스널에 3골차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 EPL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12연승도 이어갔다. 12연승 동안 맨시티는 33골을 터트렸고, 실점은 단 5골로 '천적'임을 입증했다.

이날 승리로 7연승과 함께 최근 10경기 무패(8승 2무)행진을 이어간 맨시티는 23승 4무 4패(승점 73)를 기록, 최근 4경기(3무 1패)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한 아스널(승점 75)을 승점 2차로 압박했다. 특히 맨시티는 아스널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

여서 역전 우승의 희망을 더욱 부풀렸다. 통계 전문 업체 옵타는 이날 승리로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92.1%까지 올랐다고 전망했다. 아스널의 우승 전망은 7.9%로 쪼그라들었다.

올시즌 EPL 33번째 골을 기록한 홀란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를 제치고 EPL 38경기 체제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1992~1993시즌 출범한 EPL은 22개 팀이 42경기씩 치르다가 1995~96시즌부터 20개 팀 38경기 체제로 바뀌었다. 살라는 2017~18시즌 EPL에서 32골을 넣은 바 있다.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맨시티 유니폼으로 바뀌 입은 홀란은 EPL 33골을 포함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골, 리그컵 2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2골, 커뮤니티실드 1골로 공식전 49골 8도움을 기록 중이다. 57개의 공격포인트를 달성하는 괴력을 발휘한 홀란은 이번 시즌 58분마다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한 셈이다.

전반 7분 만에 데브라위너와 홀란의 합작 골로 리드를 잡은 맨시티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반 26분 홀란의 패스를 받은 데브라위너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파고들어 시도한 왼발 슈팅이 몸을 던진 수비수에게 막혔고, 2분 뒤에는 데브라위너가 내준 볼



엘링 홀란이 27일(한국시간) 아스널과의 EPL 31라운드 경기에서 팀의 네번째 골을 터뜨린 뒤 뒤통수에서 금발을 풀어 헤치고 그라운드를 질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을 잡고 페널티지역으로 쇄도한 홀란이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때린 왼발 슈팅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히는 등 공세를 파부었다.

전반 추가시간 맨시티는 데브라위너가 오른쪽 중원에서 차올린 프리킥을 존 스톤스가 헤더로 연결해 전반을 2-0으로 앞

섰다. 후반 9분 만에 데브라위너가 추가 골을 터트렸고, 홀란이 도우미가 됐다. 홀란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내준 볼을 데브라위너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멀티골을 완성했다. 홀란도 '멀티 도움'을 작성했다.

반격에 나선 아스널은 후반 41분 톱 홀딩의 추격골이 터졌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홀란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필 포든의 도움을 받아 왼발 슈팅으로 썩기골을 꽂으면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김하성, 9경기 만에 멀티 히트... 200안타 돌파

3타수 2안타 2도루 활약... 컵스 5-3 꺾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중인 김하성이 열흘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달성하며, 1할대 타율에서 벗어났다. 빅리그 개인 통산 200안타(201개)도 넘어섰다. 김하성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3

MLB 시카고 컵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 2도루로 활약했다.

김하성이 한 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을 친 건 17일 밀워키 브루어스전(4타수 2안타) 이후 열흘 만이자 9경기 만이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197에서 0.215(79타수 17안타)로 올랐다.

3회 첫 타석에서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김하성. 뉴스스

정면으로 날아가는 볼을 겪은 김하성은 4회 2사 3루에서 상대 선발 드루 스마일리에게 공 13개를 던지듯 한 끝에 볼넷을 얻었고, 2루 도루도 성공했다. 김하성의 올 시즌 2번째이자, 빅리그 개인 통산 20번째 도루다.

3루 주자 제이크 크로넬워스가 홈으로 뛰는 듯한 페이스 모션으로 김하성은 편안하게 2루에 도달했다.

김하성은 7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컵스 오른손 볼펜 애드버트 알조레이의 슬라이

더를 받아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빅리그 3년차 김하성의 200번째 안타였다.

김하성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김하성은 오른손 볼펜 줄리언 메리웨더의 시속 158km 직구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김하성은 수비에서도 8회초 1사 1루에서 컵스 일본인 타자 스즈키 세이아의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해 2루로 정확하게 송구하는 호수비를 펼쳤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공수 활약 속에 컵스를 5-3으로 꺾고 승률 0.500(13승 13패)을 회복했다.

임한상 기자 hsrin@skyedaily.com

"쇼게임서 라오스 승리 팬" 이만수, 팬티 세리머니 공약

현역시절 '헐크'라고 불리웠던 '라오스 야구의 대부'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라오스 야구 대표팀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승을 거두면 수도 비엔티안의 대통령 궁에서 속옷만 입고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만수 전 감독은 27일 취재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SK 수석코치였던) 2007년 5월 26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만원 관중 달성 공약이었던 '팬티 퍼포먼스'를 펼친 것처럼 이번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승리로 선수들과 비엔티안 대통령 궁을 한 바퀴 돌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라오스 선수들도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 대통령 궁을 돌 수 있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그날을 위해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전했다.

라오스 야구 대표팀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에도 이 전 감독은 라오스 야구 협회 부회장으로 선수들과 동행했고, "첫 승을 거두면 대통령 궁에서 속옷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18년 대회에서 라오스는 태국과 스리랑카에 패하면서 공언을 실행하지 못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첫 승'에 도전한다. 이만수 전 감독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꼭 속옷 세리머니를 다시 펼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라오스 야구 대표팀은 22일 프 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KT 위저즈와 주말 잠실 경기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 행사를 가졌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2007년 이만수 당시 SK 와이번스 수석코치의 속옷 세리머니. 이만수 전감독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